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1면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시대 개막	1
江原日報	01면	“강원자치도 번영 이끌자”	2
江原日報	02면	강원자치도 제2청사 근무 시작	2
江原日報	02면	“道 2청사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이끌 것”	3
江原日報	12면	"침체된 동해안 새로운 전환점 기대"	4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특자도 본청-제2청 양 날개로 글로벌 비상	5
강원도민일보	03면	"동해안 작은 항구도시 아닌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길"	5
강원도민일보	03면	김 지사 "제2청사 기능 확대·청사 신축 검토"	6
江原日報	03면	한일교류협회 日 방문 자치도의회 외교 재개	6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정책지원관 24명 '풀가동'	6
KBS 강릉	온라인	강원도 '제2청사' 개청...앞으로 과제는?	7
MBC 강원영동		강원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 문 열었다[1/2]	8
MBC 강원영동	온라인	강원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 문 열었다	10
江原日報	03면	“도정 1년 평가 공방 … 지원조례 실효성 논란도”	11
江原日報	03면	불붙는 양구 도의원 재선거 후보자 자천타천 5명 물망	12
강원도민일보	21면	금강대기 중학교 축구대회 '킵오프' 2주간 대장정 돌입	13
강원도민일보	23면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강원특자도 정책 직접 찾는다	13
江原日報	20면	성인지예산 효과적 운영 방안 모색	14
江原日報	21면	[동정] 심오섭 강원도의원(강릉)	15
강원도민일보	11면	[동정] 심오섭 도의회 사회문화위 부위원장	15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심오섭 도의원(강릉)	15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	15
강원도민일보	04면	"교사가 학부모 민원 직접 받지 않도록 절차 일원화 해야"	16
江原日報	01면	행안부 '고성 산불 구상권 소송' 항소	17
江原日報	05면	"아이 키울 곳 없어요" 위기의 미혼모들	18
강원도민일보	02면	남은 인허가 4개...오색케이블카 '10월 착공' 속도전	18
강원도민일보	07면	강원 5대 무역항 물동량 증가	19

江原日報	01면	"택배·식료품이 날아오네" 영월 드론배송 상용화 시동	20
강원도민일보	08면	춘천먹거리복합문화공간 '반쪽 준공' 위기	21
강원도민일보	13면	'3000명 상주 기대' 태백교도소 건립 본격화	21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지역개발 공모사업 효과 극대화 과제	2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도 제2청사, 주민 소통 강화해야	23
江原日報	19면	[사설] 도정 사상 첫 제2청사 출범, 균형발전 주도해야	24
江原日報	19면	[사설] 태백선 준고속열차, 올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25

2023 07 25 ()

01

江原日報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시대 개막

강릉서 개청식 도정 업무 시작
3개국·총괄기획관 287명 근무
김지사 '2청사 비전' 첫 결재
“유능한 직원들이 발전 이끌것”

속보=동해안과 강원남부권 발전을 주도할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시대가 강릉에서 활짝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개청식(본보 24일자 1면 보도)이 24일 강원도립대 내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관에서 진행됐다.

개청식은 대학 내 산학협력단 세미나실에서 국장급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장 수여식으로 시작됐다. 강원도정 업무를 제2청사에서 시작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것이었다. ▶관련기사 2·12면

정일섭 초대 글로벌본부장의 경과보고, 도민축하메시지 영상 상영, 축하공연과 기념식수, 현관 제막식 및 청사 시설 시찰이 이어졌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기념식수와 현관제막식을 한 후 앞으로 직원들이 근무할 제2청사의 글로벌관을 순회하며 근무환경을 확인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제2청사 출근 후 첫 결재를 했다. 1호 결재는 제2청사의 운영 방향을 담은 '제2청사 비전 및 추진 전략'이었다.

제2청사에는 미래산업국, 관광국, 해양수산국 3개국과 총괄기획관 등 부서가 있으며 287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김진태 지사는 “청사 건물부터 모

든 것을 다 갖추고 시작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일하기에 주어진 여건에서 바로 시작하기 위해 임시청사로 문을 열게 됐다”며 “동해안 발전을 위해 배치된 도정의 유능한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영동지역과 강원 남부지역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접할 수 있게 됐고, 항만 경제 관광 등의 활성화로 이어져 동해안권 개발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도청 제2청사 개청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글로벌본부가 영동지역의 번영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 강릉시 차원에서도 적극 돕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개청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 김홍규 강릉시장, 원강수 원주시장, 이상호 태백시장, 이병선 속초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신영재 홍천군수, 최명서 영월군수, 심재국 평창군수, 최

승준 정선군수, 함명준 고성군수 등 도내 시장·군수, 도내 시·군의회의장, 김광래 강원도립대총장 등 대학 총장단 및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2청사 개청을 축하했다.

최영재기자 yj5000@kwnews.co.kr

2023 07 25 ()
01

江原日報



“강원자치도 번영 이끌자”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개청식이 24일 강원도립대 내 제2청사 글로벌관에서 열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장·군수, 도의원 등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2023 07 25 ()
02

江原日報



강원자치도 제2청사 근무 시작 강원자치도 제2청사 개청식이 24일 강원도립대 내 2청사 글로벌관에서 열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장·군수, 내빈들이 청사를 둘러보고 있다. ▶관련기사 1면

강릉=권태명기자 kwon80@kwnews.co.kr

江原日報

2023 07 25 ()

02

“道 2청사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이끌 것”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릉 제2청사에 도정의 비전을 담은 핵심 기능들이 모두 들어 있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4일 개청식 후 제2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제2청사의 명칭을 ‘글로벌본부’로, 산하 국을 ‘미래산업국’으로 각각 정한 것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그대로 옮겨왔다는 의미가 있다”며 산업 관광 해양 등도의 핵심 기능이 이곳에 모두 담겨 있다고 보면 된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또 “글로벌본부장과 세 명의 국장단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을 도청 최고의 우수자원, 에이스 중의 에이스로 고심 끝에 선발했다”고 덧붙였다. 임시청사가 아닌 본청사 구축 일정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강원자치도법 상 제2청사가 부지사급으로 개정돼야 하고, 언제쯤 완성된다고 밝히면 다시 한번 업무적 구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본 2청사 건립 시기가 다가오면 따로 알리겠다”고 했다.

제2청사를 자주 찾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씩 넓지는 않지만 이곳에 집무실이 마련돼 있고, 이달 초 강릉세계합창대회 주간에는 1주일에 4번 도청-강릉을 오가는 동안 기압 차로 귀에서 웅 소리가 날 정도였다”며 그만큼 영동-영서를 오갈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긴 장마와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위험이 높은 만큼 도내 시·군 전역에 현장 점검 지시를 내린 상태로, 이곳 제2청사뿐 아니라 어떤 현장이든 체력이 허락하는 한 현장을 자주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릉=최영재기자 yj5000@

“침체된 동해안 새로운 전환점 기대”

기관·단체장 및 주민 대표 참석 개청식 축하
영동·영서 연계 지역 현안 빠른 소통·협의 기대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글로벌본부)가 24일 강릉에서 개청하자 지역 주민들은 인구 감소 등으로 침체된 영동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강원도립대에서 열린 제2청사 개청식에는 많은 기관·단체장과 주민 대표들이 참석해 동해안 새 역사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도청 제2청사가 강원도립대 건물을 쓰는 임시청사이고 당초 영동권에서 제시한 큰 규모의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주민은

제2청사 설치 공약을 지켜준 강원특별자치도청에 감사함을 나타냈다.

개청식에 참석한 주민 홍귀남(60·구정면)씨는 “그동안 소외됐던 동해안의 발전과 주민들이 바라던 미래가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찼다”며 “도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2청사 소재지인 강릉이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마남진 한국은행 강릉본부장은 “이번 제2청사 개청으로 영동·영서 간 연계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개청식이 24일 강릉 제2청사 글로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관광 분야와 탄소·수소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부문에서 신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어업인들 역시 제2청사 개청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조경목 도바다양식협회장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어업인들의 고민이 크다. 그런데 이 같은 현안들을 도청과 더욱 발 빠르게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긍정적으

로 내다 본다”고 말했다. 정일섭 강원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조직의 내실을 다지고, 청사 이전이 지역 발전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강릉=최영재기자

강원도민일보

강원특자도 본청-제2청 양 날개로 글로벌 비상

강릉 주문진서 제2청사 개청식
관광·수소산업 해양기능 강화
김 지사, 2청사 비전전략 결재

영동과 영서의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 갈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문을 열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개청식이 24일 강원도립대에서 김진태 도지사와 권혁열 도의장을 비롯해 김홍규 강릉시장 등시장군수, 김중석 강원도민일보회장을 비롯한 도단위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글로벌본부장 등이 임용장을 받고,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실현의 주축이 될 것을 다짐했다.

제2청사는 '글로벌본부'라는 명칭으로 산하에 3국(미래산업국·관광국·해양수산국)과 총괄기획관, 4개 사업소(DMZ박물관·수산자원연구원·



영동과 영서의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 갈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개청식'이 24일 강원도립대에서 개최됐다.

서영

내수면자원센터·한해성수산자원센터) 총287명 규모로 출범했다. 앞으로 영동·남부권에 특화된 관광

산업을 비롯해 수소 등 미래 첨단산업, 해양·수산 분야 기능 등을 중점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3개국과 종합민원실로 시작하는 2청사지만 도청의 핵심 기능이 다 들어왔고, 강

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다 담아냈다"며 "업무인사역시 고심 끝에 최고에이스트를 선발해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제2청사 직원들이 춘천 분청도 도청이고 강릉의 2청도 도청이니 창립멤버로 자부심을 갖고 일해주길 바라고, 2청사에 자주와서 업무를 보겠다"며 "본청과 2청의 양날개를 활짝 펼쳐서 날아오르겠다"고 약속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2청사 개청은 도내 현안 사업들을 직접 현장에서 기획하고 집행해 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고, 행정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이라며 "제2청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규모 확대와 영동·남부권을 관할할 수 있는 파격적인 기능의 이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개청식 이후 김진태 지사는 직원들과 함께 글로벌관 곳곳을 시찰한 후 2청사 집무실에서 1호 결재로 '제2청사비전 및 추진전략'을 결재했다. 이연재 > 관련기사 3면

강원도민일보

"동해안 작은 항구도시 아닌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길"

제2청사 개청 주문진 시대 개막

김 지사, 본부장 등 임명장 전달
기념식수·제막식 첫 출발 알려
경제 활성화·인구 증가 등 기대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 본부 개청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 등 도시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가 24일 강원도립대 내 청운관에서 개청되면서, 2청사 주문진 시대가 개막했다.

이에 주문진읍민을 비롯한 강릉시민들은 일제히 환영하며 지역발전 기대감에 한껏 부푼 모습을 보였다.

지역주민들은 1964년 2월 4개 팀으로 편제된 강원도 수산사무소를 시작으로 1967년 도 동해출장소를 거쳐 2012년 도 환동해본부로 승격된 데 이어, 도 수산사무소 개소 이후 60년의 세월을 지나 도청 제2청사가 개청되자 감개무량하면서 감격해 했다.

주문진의 한 주민은 "주문진이 동해



강원특별자치도 2청사 개청식 이후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회의장, 김홍규 강릉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등이 2청사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서영

안의 작은 항구 도시가 아니라 복합행정 기능을 갖춘 글로벌 도시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김윤기 주문진읍이장협의회장은 "과거 주문진 인구가 3만5000여 명에서 현재 1만6000여 명으로 줄어 경기 침체 등 주민들의 삶이 어려울 때 제2청사가 개청돼 앞으로 지역발전이 기대된다"며 "주문진읍이 다시 한번 번성할 수 있도록 글로벌 본부가 앞장서 줘야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중남 강원도연승어업인연합회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예고 등

으로 어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도청 기능이 강화된 글로벌 본부가 개청돼 크게 환영한다"며 "앞으로 다각적인 어민 지원과 동해안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제2청사가 개청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준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회, 도청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관광과 산업, 해양수산을 담당하는 글로벌본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개청식에서 정

일설 글로벌본부장을 비롯한 2청사 국장들과 도 본청 국장들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또, 기념식수와 현판제막식을 갖고 2청사의 성공적인 첫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장에는 김홍규 강릉시장을 비롯해 원강수 원주시장, 이상호 태백시장, 이병선 속초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신영재 홍천군수, 최명서 영월군수, 심재국 평창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함명준 고성군수 등 시장군수들이 대거 참석, 2청사 개청을 축하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강원도민일보

김 지사 “제2청사 기능 확대·청사 신축 검토”

기자간담회서 공약 1호 완료 자축 강릉 최씨·강릉 김씨 종친회 방문

“상생과 균형발전, 영동과 영서를 아우르는 진정한 제2청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청사 신축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

24일 강원도립대 청운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 본부 개청식이 개최된 가운데 김진태 도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동지역 선거 공약 사항 1호인 제2청사 개청을 자축하며 향후 글로벌 본부를 한단계 더 끌어올

려 명실상부한 조직과 기능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제2청사는 올 1월에 개청 목표를 발표하고 6개월 만에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힘없이 달려왔다”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 놓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지만 끝까지 밀어부쳐 개청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동과 강원남부권의 산업에 맞는 3개국을 우선 배치했으며 특히 관광국은 본청의 조직을 모두 가져와 글로벌본부가 관광의



김진태 지사가 24일 제2청사 집무실에서 1호 결재로 ‘제2청사 비전 및 추진전략’을 결재했다.

중심을 이루게 했다”며 “관광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도내 관광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인사는 도

의미를 담은 미래산업국, 글로벌본부라고 명명한 것도 큰 뜻을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오늘 제2청사 개청이라는 첫발을 내디뎠지만 앞으로 부지사급이 책임을 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신축청사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체력이 닿는데까지 주 1회 이상은 글로벌 본부에서 근무하며 민생을 살피겠다”며 “당분간 불편을 겪고 있는 공직자들에게도 인사가점을 주는 등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청사 개청 등 일정 이후 강릉지역 원로 들인 강릉 최씨, 강릉 김씨 종친회 사무실을 차례로 들러 인사하고 축전으로 귀청했다.

홍성배

江原日報

한일교류협회 日 방문 자치도의회 외교 재개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의회 외교를 재개한다.

도의회 한일국제교류협회는 오는 31일부터 5일 일정으로 일본 도야마현을 방문한다. 한일교류협회는 도야마현의회 의사당을 견학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접목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문에는 올 5월 한일국제교류협회장으로 선임된 최승순 의원을 비롯한 회원들과 권혁열 도의장 등 8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최승순 회장은 “5년간 중단됐던 활동을 이어가는데 의의가 있다”며 “강원자치도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살피고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도의원들은 몽골 튜브도의 초청으로 오는 26일부터 몽골을 방문하려 했으나 집중폭우 상황을 감안해 해당 일정은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

강원도민일보

도의회 정책지원관 24명 ‘풀가동’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정책지원관 채용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24명 ‘완성체제’를 가동한다.

도의회(의장 권혁열)는 최근 정책지원관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합격자 6명에 대한 등록을 완료했다. 이들 6명의 발령 예정일자는 다음달 1일이다.

이로써 도의회는 지난해 1월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 1년 6개월만에 24명 완성체제를 갖추게 됐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 총 정수의 절반 수준에서 채용할 수 있다. 의원 정수가 49명인 강원도의회는 24명을 배치할 수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4월, 정책지원관 6명을 처음으로 뽑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12명을 뽑아 총 18명을 6개 상임위원회에 3명씩 배치했었다.

신임 정책지원관 6명이 추가 배치되면, 상임위별로 총 4명의 정책지원관 이의정활동 지원에 나서게 된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선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설화 lofi@kado.net

2023 07 24 ()

KBS 강릉

강원도 '제2청사' 개청...앞으로 과제는?



[앵커]

이렇게 강원도청 제2청사가 공식 업무에 돌입했지만, 앞으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애초 계획한 부지사 체제를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추가 개정해야 하고, 새로운 청사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어서,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청 제2청사는 일단 '임시 청사'에 마련됐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청운관과 옛 환동해본부 건물 등을 활용합니다.

청사까지 새로 지으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속한 개청을 위한 선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청사 확장과 업무 효율성 등의 차원에서도 신청사 건립이 필요합니다.

[권혁열/강원도의회 의장 : "앞으로 점차적으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좀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갈 것이고요."]

2청사가 문을 열면서, 강릉으로 새로 발령 난 직원만 100명이 넘습니다.

일정 기간 후 돌아가는 단순 순환근무에 그치지 않도록,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도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이곳으로 자리를 옮긴 공무원들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이나 복지 확대 등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애초 계획한 부지사 체제의 2청사도 고민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가 빠지면서 무산됐는데, 강원도는 특별법 3차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다음번 (특별법) 개정될 때는 그게 (자치조직권 특례) 들어가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부지사급으로 다시 조직개편이 이뤄질 겁니다."]

김진태 지사는 2청사 근무 직원들에게 인사 가점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업무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청사는 너무 늦지 않게 제대로 건립할 계획이라며, 생각하는 방안은 있지만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정면구

2023 07 24 ()

MBC 강원영동

강원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 문 열었다

김인성

강원특별자치도청의 제2청사가
'글로벌본부'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3개 국, 287명이 강릉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추가 개정되면
조직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청사가
'글로벌본부'라는 이름으로
강릉에 문을 열었습니다.

- 현장을 테이프 커팅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수장인
초대 글로벌본부장에
정일섭 전 강원도 행정국장을 임명하고,
글로벌본부에서 일할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1964년 강원도 수산사무소로 시작해
주로 해양수산 분야 위주의 업무를 해온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해양수산국으로 바뀌어
현 건물인 '환동해관'에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강원도립대 청운관은 '글로벌관'으로 변신해
강원도청에 있던 관광국이 이전해 왔고,
미래산업국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총괄기획관과 민원실이 신설됐고,
DMZ박물관 등 기존의 4개 사업소까지 더해
3개 국, 287명 체제로 운영됩니다.

김진태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말로만 제2청사가 아니고
여기도 진짜 도청입니다.
모든 핵심적인 기능도 여기에 다 갖췄고요.
진정한 특별자치시대는 제2청사와 함께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는 영동지역에서 춘천까지 가지 않고도
여러 가지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정일섭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
"(춘천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많은 민원 업무들을
발굴해서 영동지역 주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청까지 가지 않고 제2청사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추가 개정해서 제2청사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혁열 / 강원특별자치도의장

"(제2청사가) 제대로 가자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특별자치도 특례 안에 넣어야만
정부로부터 행정적 규제를 벗어나서
더 많은 국이 와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청사가 임시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했지만
앞으로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
글로벌본부의 기능 확대와 청사 신축 등도
고민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 (영상취재:박민석)

2023 07 24 ()

MBC 강원영동

강원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 문 열었다

김인성

강원특별자치도청의 제2청사가 '글로벌본부'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3개 국, 287명이 강릉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추가 개정되면 조직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청사가 '글로벌본부'라는 이름으로 강릉에 문을 열었습니다.

- 현장음 테이프 커팅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수장인 초대 글로벌본부장에 정일섭 전 강원도 행정국장을 임명하고, 글로벌본부에서 일할 직원들에게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1964년 강원도 수산사무소로 시작해 주로 해양수산 분야 위주의 업무를 해온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해양수산국으로 바뀌어 현 건물인 '환동해관'에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강원도립대 청운관은 '글로벌관'으로 변신해 강원도청에 있던 관광국이 이전해 왔고, 미래산업국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총괄기획관과 민원실이 신설됐고, DMZ박물관 등 기존의 4개 사업소까지 더해 3개 국, 287명 체제로 운영됩니다.

김진태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말로만 제2청사가 아니고
여기도 진짜 도청입니다.
모든 핵심적인 기능도 여기에 다 갖췄고요.
진정한 특별자치시대는 제2청사와 함께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는 영동지역에서 춘천까지 가지 않고도 여러 가지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정일섭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
"(춘천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많은 민원 업무들을
발굴해서 영동지역 주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청까지 가지 않고 제2청사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추가 개정해서 제2청사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혁열 / 강원특별자치도의장
"(제2청사가) 제대로 가지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특별자치도 특례 안에 넣어야만
정부로부터 행정적 규제를 벗어나서
더 많은 국이 와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청사가 임시 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했지만 앞으로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 글로벌본부의 기능 확대와 청사 신축 등도 고민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 (영상취재:박민석)

江原日報

2023 07 25 ()

03

“도정 1년 평가 공방… 지원조례 실효성 논란도”

자치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무엇 남겼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8월 회기 없는 달을 앞두고 지난 21일까지 제 321회 임시회를 마무리지었다.

12일간 이어진 이번 회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마련됐고 민생 조례 등이 통과되기도 했다.

다만 각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의원들 스스로도 조례 지원 대상이 적절한지 살피고 실효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진의 A도 의원은 “지원 조례의

경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발굴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원 조례이지만 실제로 대상은 불명확하거나 매우 협소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생색내기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의원들 스스로 잘 판단해 발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선의 B도 의원도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은 좋는데 조례를 조금씩 개정하는 행위가 불필요해 보였다”며 “의원들이 경쟁하듯 개정 조례를 발의해 조금씩 손보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였다. 실효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지역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후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형성 후 재상정하기로 한 결정은 바람직했다는 평가다.

이번 회기에서 여야 간 공방도 보였다. 전찬성(더민주·원주) 의원이 19일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진태 지사의 1년 도정을 평가하면서 거센 공방을 벌였다. 답변 기회를 얻지 못했던 김진태 지사는 이후 국민의힘 의원 도정 질문 차례에 발언 기회를 얻기도 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江原日報

2023 07 25 ()

03

불붙는 양구 도의원 재선거 후보자 자천타천 5명 물망

이기찬 부의장 도의원직 상실
국힘 김왕규·김연성·유승철
민주 김규호·곽원일씨 거론
자치도의회 부의장 선출 촉각

속보=이기찬 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도의원직을 상실(본보 24일자 5면 보도)한 가운데 ‘양구 도의원’ 재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구에서는 재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이 자천타천 거론되며 선거 분위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양구 도의원’ 재선거는 내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됐다.

양당 강원도당 등 지역정가에 따르

면 현재 재선거 출마 후보자로 자천타천 5명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왕규(60·전 양구부군수) 강원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김연성(37) 강원도당 청년부위원장, 유승철(61) 양구군재향군인회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 김규호(60) 전 강원도의원, 곽원일(61) 강원도당 부위원장 등이다. 김왕규 정책기획단장의 경우 지난해 양구군수 선거에 도전했다가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고, 더불어민주당 김규호 전 도의원, 곽원일 부위원장도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후보군은 일찌감치 선거준비에 돌입했고, 국민의힘 후보군은 아직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는 분위기지만 하반기에 들어서 서서히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선거와 마찬가지로 강원자치도의회에서는 부의장 자리에 누가 오를지도 관심이 크다. 절대다수인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부의장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년 만에 공

석이 된 이 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지 고민이다. 현재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선급 의원들의 경쟁 가능성이 있다.

심영곤(삼척) 운영위원장, 한창수(횡성)기획행정위원장, 김기철(정선) 경제산업위원장, 김용복(고성) 농림수산위원장, 박길선(원주) 교육위원장 등 5명이다. 여기에 동해시의장을 지낸 초선의 김기하(동해) 의원도 거론된다. 관행적으로 선수에 따라 의장단을 결정한 가운데 이번 의장단 및 국민의힘 원내에서 부의장 선출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경쟁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의장단은 조만간 회의를 열고 부의장 선출 방식 및 시기 등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원직을 상실한 이기찬 전 부의장은 22일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면목이 없으며 부끄럽다”며 “아쉬움도 크고 마음도 쓰리지만 순응하며 대장부답게 하겠다”고 적었다. 이하늘·이현정기자

2023 07 25 ()
21

강원도민일보

금강대기 중학교 축구대회 '킵오프' 2주간 대장정 돌입

U15 34개팀·U14 23개팀 참가
U14 유스컵 공식 승인 시상 진행
본선부터 유튜브 실시간 중계도



한국 축구 유망주의
등용문인 '2023금강
대기 전국 중학교 축
구대회'가 24일 '국민
스포츠타운' 평창에
서 개막, 2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대회 첫날 진부면민체육공원 A구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심재국 평창군수, 심현정 평창군의장, 홍창표 강원특별자치도 축구협회 부회장, 정장호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장순 NH농협 평창군지부장, 지광천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김성기 평창군의회 부의장, 남진삼 평창군의원, 지형진 평창군체육회장, 이주한 진부농협조합장 등 기관·단체장과 대한축구협회·도 축구협회 관계자, 선



24일 평창 진부면민체육공원 A구장에서 열린 2023 금강대기 중학교 축구대회 경남 김해중FC와 서울 J연세FC의 개막전을 앞두고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심재국 평창군수, 심현정 평창군의장, 홍창표 강원특별자치도 축구협회 부회장, 정장호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기관·단체장이 선수단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오른쪽) 이날 참석한 기관·단체장들이 시축하고 있는 모습.

수·지도자, 학부모 응원단 등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했다. 이날 심재국 군수는 환영사에서 "금강대기는 수많은 국가대표 및 프로선수들을 많이 배출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회"라며 "선수단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앞으로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 평창에서도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중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스포츠 대회에는 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중 '금강'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값진 이름으로 다이아몬드를 뜻한다"며 "금강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길 바라며 정정당당히 싸워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심현정 군의장은 축사에서 "금강대기 같은 대회 덕분에 우리나라가 손

길 같은 훌륭한 선수를 배출한 축구강국이 될 수 있었다"며 "선수단도 이번 대회를 통해 훌륭한 선수가 되길 바란다. 또 대회 도중 여유가 있다면 주변 관광지도 돌아보면서 힐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U15(고학년부) 34개, U14 유스컵(저학년부) 23개 총 57개 팀이 참가해 부문별 '최강' 자리를 놓고 열전을 펼친다.

올해부터 U14 유스컵도 공식 승인을 받아 단체상 및 개인상에 입상한 팀과 선수들에게 시상식을 진행한다. 본선부터 '유튜브 강원도민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U15 대회는 30일, U14 유스컵 대회는 31일부터 본선이 시작된다. U15 대회 결승전 내달 6일, U14 유스컵 대회 결승전은 내달 5일 각각 열린다. 심예섭 yess@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7 25 ()
23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강원특자도 정책 직접 찾는다

아동총회 월드비전 강원지역대회
의장단 아동참여권 보장 정책 토론
신 교육감 "교육 주체의 시선 필요"



2023 대한민국 아동총회 제15회 월드비전 강원지역대회가 24일 춘천 썬스나인호텔에서 개막했다.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우선 과제를 스스로 찾아 지역사회에 제안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2023 대한민국 아동총회 제15회 월드비전 강원지역대회가 24일 춘천 썬스나인호텔에서 각 시·군을 대표하는 아동총회 의장단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이주한 춘천교대 총장(아동이 살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 만들기 추진위원장), 박인필 월드비전 강원사업본부장, 임미선 도의원, 김중관 도차지경활위원회 상임위원, 엄정호 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신희경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장 등 추진

위원과 협력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총회는 '아동이 성장하기 좋은 세상인가요?'라는 주제 아래 열린다. 아동총회의 의장단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토론을 통해 아동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문을 도출, 채택한다. 차희원(춘천 성수고 1년) 제14기의 장은 "활동 초창기에는 아동권리에 대

한 인식이 부족해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많이 관심이겨주셔서 보람을 느낀다"며 "더 강한 책임감으로 활동하자"고 했다. 김진태 지사는 축하영상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해야 강원특자도의 미래가 밝아진다.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주한 총장은 "인권에 대해 주제적으로 이해하고 공부하는 실천의 장인

만큼 아동권이 오롯이 보장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을 힘써 만들어가자"고 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더 특별한 교육으로 강원도를 찾아오게 한다는 새로운 비전을 구체화하려면 교육의 주체인 여러분의 슬기가 필요하다"며 "아동청소년의 정직한 시선을 통한 교육생태계 점검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역소멸이라는 강원도의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적 제안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어르신 세대로 구성된 강원도 선배시민 의장단도 참석, 격려해 의미를 더했다. 권진택 강원도 선배시민의장은 "아동에 대한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기성세대로서 정말 죄송하다. 아동들의 정책제안이 도내 많은 기관과 주민들의 꾸준한 관심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선배시민의 몫"이라며 응원을 약속했다. 이번 총회는 25일까지 열린다. 김여진

江原日報

2023 07 25 ()

20

성인지예산 효과적 운영 방안 모색

오늘 도여성가족연구원 포럼
기관별 성평등목표 수립 주제

강원특별자치도 내 성인지예산 기관별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강원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은 25일 오후 1시30분 연구원 1층 강당에서 ‘202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한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을 편성·심의·집행·결산하는 등 재정 운용 과정에서 국가 예산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배분 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는 제도다. 도는 올해 예산 중 130개 과제에 대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했다.

이날 발제에는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와 안희정 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각 ‘성인지예산 제

도 추진 핵심 과제: 성평등 목표 수립을 중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성평등 목표 제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마련된 지정 토론에서는 임혜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팀장과 강경숙 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임미선 강원자치도의원, 정유선 강원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등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숙영 도여성가족연구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 성평등 목표 설정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라며 “본 포럼을 통해 발굴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내년도 성인지예산서에 작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해 최초로 발간한 ‘강원도 성인지예산 지침서’를 다음 달 중 보완, 개정판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김수빈기자 forest@

江原日報2023 07 25 ()
21

◇심오섭강원도의원(강릉)



은 25일 오후 4시 강릉영동대 예지인관에서 열리는 전국재해구호협회 강원지사 개소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2023 07 25 ()
11

심오섭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오후

4시 강릉영동대에서 열리는 전국재해구호협회 강원지사 개소식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 07 24 ()

[동정] 심오섭 도의원(강릉)

심오섭 도의원(강릉)은 25일 오후 4시 강릉영동대 예지인관에서 열리는 전국재해구호협회 강원지사 개소식에 참석.

江原日報

2023 07 24 ()

[동정]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오섭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오후 4시 강릉영동대 예지인1관에서 열리는 전국재해구호협회 강원지사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07 25 ()
04

“교사가 학부모 민원 직접 받지 않도록 절차 일원화 해야”

도내 교직원 노조·교육감 간담회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책 촉구
도교육청 “교사 안전망 구축 최선”
서울 서이초 교사 추모공간 마련

교권침해, 추락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강원도내 교직원 노조 및 단체들이 교사들의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교사가 직접 학부모를 대면하지 않도록 하거나 현장에서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전교조강원지부, 강원교총, 강원교사노조 관계자들은 24일 오전 교육감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교원단체 관계자들은 교사가 민원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폭력 신고 접수방법을 교사가 직접 민원을 받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신고 절차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수영 전교조강원지부장도 “전교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교육청에 서울 서이초교 교사를 애도하기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합동 추모식을 진행했다.

는 교육활동 방해 학생 대응 프로그램을 포함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학교 규칙 표준안’을 학교급별로 정리해 안내해야 한다는 대책을 요구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며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서둘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도교육청에서 도내 노조 및 단체 대표자와 학교현장지원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단에서 일어난 젊은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선배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애도하며, 앞으로 학교 현장과 교육계의 의견을 모아 선생님들께서 마음 편히 교육활동을 이

어나갈 수 있는 안전망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같은 날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증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외부협의실에서 열린 서울 서이초교사 합동 추모식에는 신경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과 강원교총, 강원교사노조, 전교조강원지부, 전공노, 공공운수노조, 한노총 등 교직원 노조 및 단체가 함께 참석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조전을 통해 “교육청과 함께 선생님들의 인격과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해당 추모 공간은 오는 30일까지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김정호

2023 07 25 ()
01

江原日報

행안부 '고성 산불 구상권 소송' 항소

“한전 400억중 60억 상환 책임” 1심 판결에 불복
소송 장기화 이재민 보상금 지급 4년 넘게 지연

속보=정부가 2019년 고성 산불 이재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두고 한국전력공사와 벌인 구상권(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소송의 1심 선고 결과(본보 6일자 1·5면 보도)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이재민 보상금 문제도 4년 넘도록 매듭 짓지 못하게 됐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속초시 포함)는 한전이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이에 대한 '반소(反訴)'인 정부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소송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며 지난 21일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민사2부는 정부가 한전에 청구한 400억여 원 중 60억여원만 비용상환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정부가 항소한 배경은 이번 사건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최초의 구상권 소송이기 때문이다. 구상권 청

구 근거가 명시된 재난안전법 조항(제66조 6항)은 2017년 신설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민들은 실망하고 분노했다. 1심에서 정부가 패소해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묶어뒀던 유보금(240억여원)이 풀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불확실해졌기 때문

이다. 한전은 “1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유보금을 지급할지, 항소심 결과까지 기다릴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구상권 소송에 영향을 받는 이재민 피해 건수는 2,000여건에 달한다.

노장현 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장은 “산불 발생일로부터 4년 넘도록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게 됐다. 정부의 항소는 이재민의 아픔과 혼란을 고려하지 않은 의사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아이 키울 곳 없어요” 위기의 미혼모들

도내 '유령 영아' 18명 확인 ... 지원책 곳곳 허점

속보=강원지역에 거주하는 30대 미혼모 A씨는 요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기분이다. 4년 전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해 아이를 출산하고, 이후 미혼모 공동생활지원시설로 옮겨 보호를 받았지만 조만간 입소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미혼모를 우선 지원하는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많아 수개월째 애타고 있는 상황. A씨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매 순간이 고비”라고 토로했다.

가 안 된 '유령 영아'가 18명으로 확인(본보 지난 11일자 5면 보도)되며 미혼모 지원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영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단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곳곳이 풀려 있다. 24일 통계청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강원지역의 미혼모는 551명에 달하지만, 이 중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은 연간 50여명 안팎이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자립, 자녀 돌봄 등을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임대주택지원 불과 15세대
공실 나오면 문의전화 빗발
보호시설 이용도 수십명 그쳐
사회적 편견 여전 위기 내몰려

은 '사회적 편견'이다. 20대 미혼모 B씨는 “유치원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을 기본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자녀가 '엄마만 있는 가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사회 활동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모 등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미혼모는 더 큰 위기를 겪는다. 직장

일을 하며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다. 미혼모가 자립하는 데 1순위 요소이면서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주거 문제'다. 여성가족부가 미혼모 등에게 1순위로 지원하는 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의 경우 도내 지원 규모가 15세대 정도다.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는데 공실이 1개 발생하면 문의 전화는 15통씩 물리는 상황이다. 본보가 최근 10년간 춘천지법과 산하 4개 지원에서 선고된 영아 유기, 영아 살해미수, 영아 살해 사건 10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은 20~30대 여성들이었다. 이들이 영아를 버린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미혼모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키울 자신이 없어서' 등 심리적 불안감이 있었다. 이번 유령 영아 전수조사 결과 강원지역에서도 30대 여성이 베이비박스 에 아기를 두고 간 사례가 확인됐다. 허목화 강원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박사는 “미혼모가 고립되지 않도록 지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유령 영아 사건을 계기로 강원자치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나서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허림기자 peace@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남은 인허가 4개 ... 오색케이블카 '10월 착공' 속도전

국유림 이용·산지 사용 허가 등
9월 내 완료 목표 관계부처 협의
도·양양군 내달 절차 동시 진행
조달청 발주·업체 선정도 관건

속보=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설악산 대정봉에 첫 내리기 전인 10월 내,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첫 삽을 뜨겠다고 공언(본지 6월 20일자 2면)한 가운데 산림청의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 협의를 마치는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24일 기준 오색케이블카의 남은 인허가 절차는 △특별건설승인(국토교통부) △국유림 이용 허가·산지일시 사용허가(산림청) △공익사업 시행허가(국립공원공단)이다. 조달청 계약기간을 감안하면 모든 인허가를 9월 전에 끝내야 10월 내 착공이 가능하다. 양양군은 이달 중순 인허가 기초 자료가 되는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결과서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

이와 함께 산림청과의 백두대간 개발 행위 사전 협의를 최근 마치는 등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해 착공을 위한 '8부 능선'을 사실상 넘었다는 평가다. 양양군 관계자는 “남은 인허가 절차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산지일시 사용허가의 경우 내달 초 시작하고, 남은 인허가 또한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도와 양양군 내에선 남은 인허가 절차를 내달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이르면 9월 내 모든 인허가를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의 특별 건설 승인의 경우, 한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가 공언한 '10월 착공' 여부는 조달청 발주 기간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 양양군과 강원도는 향후 심의를 거쳐 발주 방식을 확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마치는 대로 조달청에 공사를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업체 선정은 1~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덕형 duckbr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7 25 ()
07

강원 5대 무역항 물동량 증가

올 상반기 2945만t 화물 처리

지난해 동기보다 8.5% 증가

동해·묵호항 석탄·시멘트 주효

상반기 동해·묵호항을 비롯한 강원도 내 5대 무역항의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가량 증가하는 등 활기를 띠고 있다.

동해해양수산청은 상반기 국가무역관리항인 동해·묵호항에서 1607만t의 화물을 처리해 지난해 같은 기간(1773만t)에 비해 11.6%(166만t)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동해·묵호항에서 가장 많이 처리한 화물은 석회석 30.8%(495만t)이며, 석탄 27.4%(441만t), 시멘트 26.3%(422만t)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동

해·묵호항의 물동량이 증가한 것은 안인화력발전소의 연료인 석탄 수입량이 189만t 증가한 데 이어 국내 공사현장 시멘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멘트의 내항 반출량이 47만t 증가한 것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동해·묵호항을 비롯한 호산, 삼척, 옥계, 속초 등 강원특별자치도 내 5대 무역항의 상반기 화물 처리량은 2945만t으로, 전년 동기(2714만t) 대비 8.5%(231만t) 증가했다. 상반기 호산항은 LNG 수입, 삼척항과 옥계항은 내수용 시멘트 화물, 속초항은 건설용 모래 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2023년 상반기 전국 항만 물동량 처리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7억5600만t)에 비해 1.1% 감소한 7억6400만t을 기록했다. 전인수

2023 07 25 ()

江原日報

01

“택배·식료품이 날아오네” 영월 드론배송 상용화 시동

영월군이 드론배송 서비스 상용화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경기도 가평에 드론배송센터를 오픈한 ‘파블로항공’과 공동으로 26일부터 물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드론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에 운영하는 배송 서비스는 ‘영월농협 하나로마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뤄진다. 각종 생활물품을 동강 오토캠핑장 등 원하는 장소로 주문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줄배를 타고 이동하는 영월읍 저세마을과 택배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영월읍 송이길 마을 등에도 드론배송 서비스를 통해 택배 물품을 배송,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특히 폭우와 장맛비의 영향으로 하천과 인접한 주민들이 고립될 경우 식료품과 의약품도 공급하게 된다.

이번 드론배송서비스는 11월 말까지 영월읍 동강오토캠핑장, 저세마을, 송이길 마을 등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지만 군은 드론배송 시스템과 통합 운영 플랫폼을 완벽하게 구축, 대상 지역과 기

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도 2032년 도심 드론 배송을 상용화하기 위해 관제 시스템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세계 드론 산업 5위로 도약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영월은 올 3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강원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며 드론도시로 비상하고 있다”며 “이번 서비스를 위해 드론배송 공급처와 수요처 확보는 물론 모의 비행을 통해 회랑 확보 등 배송 인프라 구축도 마쳤다”고 전했다.



농협 하나로마트 앱으로 주문
캠핑장·저세마을 등 서비스
폭우 고립 주민에 의약품 공급

영월=오윤석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7 25 ()

08

춘천먹거리복합문화공간 ‘반쪽 준공’ 위기

‘화동, 2571’ 내달 중순 준공
위탁기관 못찾아 개장 미지수
사업목적 변경 필요성 제기

민간업체 물색 4차 공고 불가피

속보=총사업비 125억원이 투입되는 춘천시 먹거리복합문화공간 ‘화동, 2571’ (본지 5월 4일자 9면)이 내달 준공되는 가운데 위탁기관을 결국 찾지 못해 ‘반쪽준공’에 그칠 위기에 놓였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의 현 공정률은 90%대로, 주차장 아스콘포장과 보도블럭 설

치 등의 공정만을 남기고 있다. 시는 내달 중순쯤 준공을 목표로 잡고 있다. 먹거리복합문화공간 건물준공은 3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개장 여부는 미지수다. 위탁기관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이달까지 세 차례 위탁기관 공모에 나섰다. 하지만 적절한 업체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실시한 공모에서는 5개 업체가 신청했으나 4개 업체가 심사 기준인 70점 미만으로 부적절 판정을 받았다. 1개 업체는 심사 당일 기권을 선언했다. 지난 2월에 실시한 공모에도 업체 두 곳 모두 부적절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3월 최초 공모 당시에는 단 한 곳도 신청을 받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화공간이 준

공된다 해도 위탁 업체를 찾을 때까지 당분간은 공실로 남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오는 9월 15~16일 이틀간 먹거리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릴 예정인 슬 페스타 장소도 KT&G 상상마당 춘천으로 변경됐다.

먹거리복합문화공간은 ‘화동, 2571’은 춘천역 앞 레고랜드 진입로 춘천대교 오른쪽 부지인 154-7번지 일원 (2만 2462㎡)에 들어선다. 청년 창업매장, 공유오피스, 우리술 체험관 등의 6개 동 건물을 지어 지역 먹거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드는 사업이다. 민선 7기 시절인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건설비와 위탁운영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합해 국비와

지방비 약 125억원이 투입됐다.

주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자 사업 목적을 변경해 새로운 사업을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영배 시의원은 “공간을 청년창업매장, 공유오피스, 술체험관 등으로 이미 주제를 정해놓은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려다 보니 내용이 특별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이제는 생각의 틀을 바꿔 사업 목적을 바꾸는 고민도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시는 현재 사회공헌기업과 접촉해 민간 위탁업체를 물색하고 있다. 여의치 않을 경우 4차 위탁업체 공고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은

강원도민일보

2023 07 25 ()

13

‘3000명 상주 기대’ 태백교도소 건립 본격화

시·법무부 설계용역 입찰 공고
1943억원 투입 2025년 6월 착공
황지동 일원 1500명 수용 규모
폐광지 지속가능 경제 활성화

폐광을 앞둔 장성광업소를 대신할 지역 최대 일터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재소자 1500명 수용 규모의 태백교도소 신축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태백시와 법무부는 최근 전국 전문설계 업체를 대상으로 교도소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도시계획, 산지, 상하수도, 개발행위 등 설계 발주를 위한 사전 협의도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31일 최종 낙찰자가 선정되면 설계가 본격 시작된다.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0일 (기본설계 300일, 실시설계 300일)이다.

태백교도소 신축 설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25년 6월쯤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준공은

2028년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최근 설계용역 수행능력평가 관련 질의응답과 함께 입찰참가 유의사항 전달 및 사업대상지 현장 여건 등을 안내하는 설계용역 참여 건축사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총 1943억원의 사업비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교도소는 황지동 산 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4만 1082㎡, 연면적 5만 2717㎡ 규모로 지어진다. 교도소가 들어서면 재소자 1500명과 교정공무원 500여명이 유

입된다. 공무원 가족까지 더하면 최소 3000여명이 태백에 상주한다. 시설 내 청소원, 기계원, 조리원 등 주민 채용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교도소는 2024년 6월말 문을 닫는 지역 최대 일터인 장성광업소를 대신할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며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2025년 상반기 조기 착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법무부와 스킨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열

강원도민일보

2023 07 25 ()
/ 19

지역개발 공모사업 효과 극대화 과제

-국토부도내 4곳 선정, 산업·관광육성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내 4곳이 정부의 지역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대규모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사업은 지역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투자 선도지구'와, 기반 시설·생활 편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 최대 25억원을 지원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선정된 도내 시군은, 이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간 자본 유치 등 준비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도와 지자체는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4곳을 선정하는 투자 선도지구 공모사업에, 도내에서는 동해시와 양구군, 양양군 3개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도는 이번에 확정된 국비 125억원을 포함해 향후 5~7년간 3415억원(국비 365억원, 지방비 1556억원, 민자 1494억원)을 투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지역 개발사업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에 선정된 정선군의 아트플랫폼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와 동시에 사업은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무릉별유천지관광자원화 정책을 추진하는 동해시는, 24명이 동시에 탑승 가능한 4.8km 구간의

순환형 모노레일을 비롯해 총 5개의 모노레일 스테이션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구군은 19만 3958㎡ 면적에 사업비 754억원을 투입해 동서고속화철도 양구역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스포츠 행정타운과 빌드업 센터 등을 조성합니다. 양양군은 민간 합동으로 1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양양읍 송암리 일원에 복합 환승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광·레저 특화 산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정선군은 국비 포함 36억원을 들여 화암면 화암리에 연면적 690㎡, 지상 2층 규모의 예술발전소와, 연면적 290㎡, 지상 2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으로 사업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 사업이 민간 자본의 안정적 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도와 시군의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들 사업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정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고용·소비 등 경기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업 유치와 유동 인구 확대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25 ()

/ 19

도 제2청사, 주민 소통 강화해야

-영동권 발전 아이디어 창구·거점 기대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시대가 개막됐습니다. 도는 24일 강원도립대 내 청운관에서 2청사인 글로벌본부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현지집무실에서 첫 업무로 '제2청사비전 및 추진전략'을 결재했습니다. 2청사 운영으로 영동권과 영서권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균형 발전이 기대됩니다. 도는 영동지역 경제 발전을 통해 강원 미래를 개척한다는 각오로 청사 운영에 임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 도시인 강릉시 주문진읍에 동지를 둔 2청사는 관광과 미래 산업, 수산업 중심의 행정 조직으로 출발했습니다. '1본부장·3국(미래산업국·관광국·해양수산국)·1기획관·4사업소' 체제 287명 규모입니다. 주요 역할은 영동권 정책 기획 및 조정입니다. 탄소와 수소 등 전략산업 육성, 디지털산업과 폐광지역 대체 산업 육성, 관광 정책 산업, 해양수산 행정을 담당합니다. 특히 동해안 해양수산 분야만 맡았던 환동해본부의 기능을, 동해안 지역과 연계된 관광, 산업 분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종합 행정기

능을 강화해 민원인도 분청이 소재한 춘천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덜었습니다. 도 행정 시스템의 진전된 변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제2청사가 행정 편의만을 위해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행정 기능 강화는 물론, 물류 발전과 해양관광 개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문진 등 강릉시뿐 아니라 영동지역 발전을 이끌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의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영동지역 시군 지자체와의 연계를 긴밀히 하는 유기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원활하게 의견을 나눌 개방형 행정 기구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사회단체와 기업,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당면한 현안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고, 집행 기관인 지자체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협의해야 합니다. 주민과의 정서적인 공감대 구축도 필요합니다. 제2청사가 단순한 행정기구 확대라는 물리적인 변화를 뛰어넘어 명실상부한 도청 조직으로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江原日報

2023 07 25 ()

/ 19

도정 사상 첫 제2청사 출범, 균형발전 주도해야

도정 사상 첫 제2청사 시대가 24일 개막됐다. 민선 8기 도정의 대표 공약 중에 하나이자 영동과 영서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이날 공식 출범했다. 강원자치도는 오전 10시 강릉 제2청사 글로벌관(강원도립대 소재)에서 개청식을 열었다. 개청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홍규 강릉시장, 원강수 원주시장 등 도내 시장·군수, 도내 시·군의회 의장 등이 대거 참석, 제2청사 개청을 축하했다. 제2청사는 이제부

터 동해안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즉, 제2청사는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2청사는 본부장을 중심으로 1기획관인 총괄기획관(4팀)과 3국, 4사업소 287명으로 구성된 만큼 기대가 크다. 3국은 미래산업국(3과), 관광국(4과), 해양수산국(4과) 등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DMZ박물관, 수산자원연구원, 내수면자원센터, 한해성수산자원센터 등도 포함, 동해안 발전에 큰 획이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자치도 동해안은 글로벌 관광·산업 혁신 거점으로 우뚝 서야 할 때다. 과거 동해안 관광은 설악산, 경포대, 오죽헌 등 자연·인문자원 바탕의 관광이었다면 코로나 이후 지금의 관광은 해양스포츠 및 체험 위주 관광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제2청사는 그동안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안 6개

시·군이 제안한 사업들이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이유를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때다. 그래서 어촌 어항 재생 사업,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해양레저 관광 사업 활성화 등 각종 정책이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과거 동해안 6개 시·군이 해오던 사업에 약간 분철을 한 것이라면 정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없다. 그리고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 서서해안, 남해안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

는 사업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도 분석해야 한다. 치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예를 들면 어촌 어항 재생 사업은 농어촌 정주민구를 늘

동해안을 글로벌 관광·산업 혁신 거점으로

“그간 해 오던 사업들 문제점 제대로 분석해 정부 공감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때”

리는 것이 지금 한계에 봉착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그렇다면 지금은 정주하지 않더라도 외부인이 농어촌을 찾아와 그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이 사업은 외부인의 유인체계와 연계돼야 한다. 관계인구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 동해안의 어촌 및 항만 특수성으로 인해 토지 이용 규제가 따른다. 이 규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 정밀한 진단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제2청사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우선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또 이 사업이 어떤 규제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江原日報

2023 07 25 ()

/ 19

태백선 준고속열차, 올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폐광지와 영동남부권을 관통하는 태백선 철도의 준고속열차(EMU-150) 연내 도입은 지역 숙원사업이다. 폐광지역의 최대 현안은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EMU-150은 춘천~서울 간 ITX와 비슷한 스펙의 신형 준고속열차다. 태백선은 1975년 개통했지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분석 결과 EMU-150의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백선 도입 시 청량리~태백 운행 시간이 현재 4시간 안팎에서 2시간30분대로 단축되며 영월까지는 1시간30분으로 줄어든다. 지역에서는 태백선의 EMU 운행은 단순한 교통망 개선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소멸을 막는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청량리~제천~영월~사북~태백을 연결하는 태백선 준고속열차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와 4개 시·군은 코레일 측과 올 들어 4차례 회의를 갖고 당초 2028년 투입될 예정이었던 시속 150km의 EMU-150의 2023년 도입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울 청량리역과 영월역, 정선 민동산역, 태백역, 삼척 도계역, 동해역 일일 왕복 1회 운행에 합의했다. 가장 큰 관건은 적자 보전이다. 경유 노선의 인구가 적고 수요 대부분이 사실상 '관광'이라는 점에서 평일, 비수기 이

용률이 크게 떨어져 적자가 불가피한 탓이다. 하지만 적자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도·폐광지 시·군과 최대치를 산정한 코레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측의 막판 줄다리기가 길어지는 이유다.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코레일과 도가 제시한 적자 규모의 편차가 수십억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적자 보전 협상이 끝나야 후속 논의를 이어 갈 수 있다. 올해 안에 운행에 들어가기 위해 신속한 타결이 필요하다.

물론 코레일의 EMU 운행은 교통 수요가 높은 타 지역의 신규 열차 투입 포기로 발생하는 '기회손실비용'을 도와 태백선이 지나는 시·군이 보전해 주는 '조건부 추진'이다. 하지만 태백선이 통과하는 지자체는 수십 년간 인적·물적 교류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다.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재단해서는 안 된다. 먼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 지역 주민들의 발 노릇을 해 온 태백선이 개선되면 지역의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코레일이 공기업답게 국가 균형발전의 기반 교통시설인 태백선 본연의 목적을 살리는 데 적극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 같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